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人 方應謨 編輯人 崔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膓窒扶斯와 豫防劑
豫防注射는各自의自由로

一

昨日 本報報道에 依하면 京畿道管內에서 昨年一年間에 膓窒扶斯에걸려 死亡한者가 二百六十八名이엿는데 그 死亡者中에는 豫防內服藥을 服用한者가 二十八名이 잇섯고 豫防注射를 마진者가 十一名이잇서 都合三十九名은 豫防劑를 使用하엿슴에 不拘하고 膓窒扶斯에 犧牲되엿다는 事實이 判明되엿다。이것을 膓窒扶斯로 因하야 犧牲된 總數 二百六十八名에 比하여볼때에 現在의 所謂 膓窒扶斯豫防劑의 效能이라는것이 그얼마나 微弱한것인가를 알수잇는것이다。그러나 吾人은 여기서 藥劑自體如何를 論하려는 것이아니라 이不完全한 豫防劑를 絶對的 有效劑로밋고 이藥의 服用또는 注射를 强制的으로 斷行하는 當局에對하야 그反省을 促하려는것이다。

二

膓窒扶斯豫防劑의 效果가 豫期한바와 갓지못하다함은 昨年이病이 流行될때에 이미 世間에 物議되엿바이엿스나 當時 一般社會는 그眞僞를 疑心하엿섯느니만치 큰問題는 되지안헛다。그러나 인제 以上統計에 依하야 豫防劑의 效能을 確實히 疑心하게된 今日에잇서서는 本問題는 重大한 社會問題로 되지안흘수업다。

元體 膓窒扶斯豫防劑는 아즉 實驗中에잇는 不正確한 豫防劑임은 醫師自身도 是認하는 바이다。그러기에 今日 世界列國은 天然痘豫防注射는 必施物로 認定하지마는 膓窒扶斯豫防注射를 强制로하는 나라는 업다。이와가티 疑問點가 만흔 豫防劑를 모든사람에게 强制한다는것은 當該官廳의 失手인同時에 그로因한 社會的不美한 影響이 적지안흔事實도 看過할수업는가한다。

三

豫防劑가 百%의 效能은 업다하드래도 幾分의 效果가 잇는것이 事實이라면 有益할지언정 無害할것이 안이냐고 當局은 말할는지모르나 死亡者中 一割以上이 豫防劑使用者라는 事實은 그效能如何를 甚히 疑心케하는 同時에 設或 어느程度의 效力이 잇다하드래도 此를 强制한다는것은 個人的또는 社會的損失을 比較하여볼때에 그取할배아닌것을 明瞭히 알수잇는것이다。即 個人的損失이라는것은 膓窒扶斯豫防注射를 마즈면 健康한 사람도 몃칠동안은 몸의 不自由를 늣기게되며 몸이弱한사람은 二三日間은 알코야난다。그리고 컨디슌이 조치못한 사람은 이로因하야 重病을 알케되는일이 만흐며 甚한境遇에는 生命까지 일케되다는것은 누구나잘아는 事實이다。

四

다음 社會的損失은 보다더 크다할것이다。첫재로 이와가티 不正確한 豫防劑를 爲하야 巨額의 財政을 濫費할 必要가 업다。七十萬京城府民에 一人當藥價가 十錢이라면 七萬圓이오 五錢이라면 三萬五千圓이 되는데 이金額은 決코 적은金額이아니다。둘재로 各個人은 豫防劑를 使用하엿다는 理由로 衛生에 忽略하게되는것이다。이것은 勿論 各自의 잘못이지마는 事實은 事實로 取扱하지안흘수업다。그리고 이 效果疑問의 豫防劑를 使用하고 衛生을 忽慢히 한다면 그結果가 어떠케될것은 想像하기에 足할것이다。셋재로는 府當局도 亦是 個人과가티 衛生施設에 忽慢하게된다。京城은 「病魔의都市」의 稱이잇느니만치 「非衛生的都市」로 有名하다。此에 關하야는 屢屢히 論評하엿스므로 여긔서 反覆하기를 避하거니와 衛生施設을 完全히하야 病魔의根源을 除去하려는 積極的 政策에 邁進치안코 消極的으로 豫防劑使用을 强制로하야 病魔에 對抗하려한다는것이 잘못된 政策이라함은 贅言을 要치안는바이다。이러한 意味에서 吾人은 膓窒扶斯豫防注射는 그效力이 確實히 證明되기까지는 各個人의 自由에 一任할것이오 決코 强制할것이 아이라는것을 主張하는 同時에 衛生施設의 積極的 政策斷行을 當局에 要望하는바이다。

國際聯盟體裁崩壞압두고 英重大會議開催
各國駐在武官을召集코各國軍事情況聽取
新軍事計畫檢討計畫

【倫敦廿六日發同盟】英國政府는 國際聯盟의 體制崩壞를 압두고 新大陸政策確立에 廣心中인데 新政策의 確立에압서 歐洲各國의 軍事情況과 軍事計畫에 關하야 仔細히 檢討를 加할 方針下에 歐洲各國駐在陸軍武官을 倫敦에 招致하고 重大會議를 開催하기로 決定하엿다고 傳聞된다 이 陸軍省의 命令에接하야 各國駐在武官은 續續 歸還中인데 會議는

一、歐洲各國의 軍事實情

一、各國政府의 軍備擴充計畫

等에 關하야 現地報告의 情報를 聽取하고 또 國民大衆에對해서도 各國軍備의 現勢에關하야 正確한 認識을 與하도록 宣傳工作을 取할 方針이다

佛政府小協商國間 關係極히微妙

【쥬네브二十六日發同盟】佛國代表델보스外相은 二十七日小協商國代表와 會見할터인데 國際政局의 推移에伴하야 佛國政府와小協商國과의 關係도 微妙한動向을示하고잇다고 解釋되는데 巴里駐箚 유고슬라비아公使 푸릿치氏는 過般 델보스外相을 訪問하고 自國이侵略을 受할 境遇에는 佛國政府는 軍事上으로支援할用意가 잇느냐를 最終的으로 明言하도록 要請 하엿다고 傳하다 地中海와 中南 歐洲의 伊太利政府의 勢力伸長과 함께 유고슬라비아政府를 爲始하야小協商國은 戰戰兢兢한 形便이다 佛國政府가 狐疑未決할 境遇에는 유고슬라비아政府는 獨逸에 接近하야 獨立維持를 圖할 것으로 豫想된다 따라서 佛國政府로서도 스트레자戰線을 固執하고 끗까지 못놀리니首相에게 義理를 세울는지 또는協商國을 支援하야 外交陣을 整備할는지 그어느것을 決定하여야할 階段에 直面한것으로 보인다

歐洲一般問題로
英佛共同戰線强化企圖

【쥬네브二十七日發同盟】佛國代表블룸首相, 델보스外相은 二十八日夜英國代表이든外相에게 會見할豫定인데 右會見에서는 單히 制裁案에 善後策其他總會의 議事方針뿐아니라 地中海의 安全保障問題 및中歐問題·歐洲의 一般的問題에對하야 意見交換을할모양이다 獨伊兩國의 接近을機會로最近歐洲의國際政局은 極히微妙한動向을示하고잇는데 確聞하면駐英伊太利大使 그랑디氏는 過般이든英國外相을 訪問하야 歐洲政局의 新機構로英獨伊三國間의協約을提案하엿다한다 右協約案은 結局將來佛國政府도 招請하야 結局四國協約을 締結할案이라고 傳한다 이든外相은 佛國政府와의 親善關係를 强調하야 單히 聽取하는程度에 끄치고 二十五日巴里에서 블룸首相及 델보스外相과 會見한時 右提案內容을兩相에게傳하고 『英國政府로서는 目下 積極的으로 交涉에드러갈 意思는업다』는旨를 確約하엿다고 보인다

但英國政府는라인國際紛爭은形式上은 歐洲大陸에서 新公約을 興하는것을 行하지안코 어데까지 超然主義를 堅持할 傾向을 示하고잇고 獨伊兩國政府의 外交進出에 直面하야 佛國政府는 頻繁히 苦慮對策을 腐心하고잇는것으로 解釋됨으로 佛國政府는 가장 有力한 盟邦인 蘇聯邦이 英國과 다다넬스海峽問題로 俄然意見對立하고 잇슴으로 블룸首相델보스外相은 右에對한 緩和에 努力하고 다음歐洲聯合案 其他 具體案을 提示하야 英國政府와의 共同戰線强化를 維持할듯하다 佛國代表는이 三英代表와의外交國策을 確立할 것으로 豫想된다

블룸佛首相 歐洲聯合案携帶코 廿七日쥬네브向發

【巴里二十七日發同盟】블룸佛首相은 二十七日 未明에 巴里出發 自動車로 急遽 쥬네브에 赴

蘇聯의民主化는 內外情勢에依據
蘇聯新憲法檢討 (5)
咸尙勳

◇第十一章 選擧制度는 蘇聯憲法 改正의 根幹을 삼엇다 해도 無關하나 이것으로서 蘇聯의 政治制度가 一變한 感이 잇스므로써다。第百三十四條를 보면 「勤勞者代表會議(사베트)即聯邦最高會議 聯邦各共和國最高會議、自治共和國最高會議、自治州、都市代表會議에의 代表는 모다 普遍、平等、直接、秘密選擧에 依하야 選擧權者가 此를 選擧함」이라 하얏스니 從來의 選擧制度에 잇서서 都市及 村落사베트等 最下級地區바에 直接選擧를 하지 안코 他州사베트、各聯邦共和國사베트、聯邦사베트에의 代表는 모다 間接選擧로 되엇든 것에 比하면 天壤의 差가 잇다。即 人民은 聯邦사베트大會代表者나 各共和國사베트大會代表者를 選出할 사람을 選出햇슬뿐이오 直接 代表者들은 選出하지 못하므로 누가 聯邦사베트大會에 出席하는지 몰랏섯다。그런데 이제는 地方代表는 勿論이오 聯邦最高會議에 參席할 사람까지 直接으로 選擧하게되엇스니 얼마나한 差異이냐。

◇

그뿐아이라 이번選擧는 平等이다。男女의 區別이 업는것은 勿論이어니와 宗敎信者、地主의 區別이 업고 적어도 市民權을 剝奪當하지 안흔 市民은 누구나 十八歲以上이면 居住期日의 制限이나 民族的 差異가 업시 다 平等히 選擧權을 가젓다。그리고 從來에는 都市、農村의 區別이 잇서서 都市는 人口 二萬五千人에 對하야 一人의 比例로、農村은 人口 十二萬五千人에 對하야 一人의 比例로 사베트代表를 選出하얏스나 今番부터는 都市、農村의 區別이 업시 三十萬人에 對하야 一人의 比例로 聯邦最高會議代表者를 選出하는等 普通的選擧이다。

◇

그리고 이번 選擧는 秘密投票다。記名投票면 直接、間接으로 政府의 壓迫을 바드나 秘密投票에 依하기 때문에 公正한 投票를 할수잇다。

◇

이 新憲法은 要컨대 蘇聯革命十九年에 그 國內的及 國際的情勢에 鑑하야 되것이니 이國內에는 어떤 程度의 自由를 許하드래도 社會的으로나 或은 政治的으로 何等 反革命的運動이 이러나지 안흘것을 本 때문이오、國際的으로 獨逸、伊太利等 파씨스트勢力이 蘇聯을 싸고 노리고 잇스므로 이에對抗하기 爲하야는 佛國、英國、米國等 民主國과 呼吸을 가티하야 共同戰線을 펴라는 心算에서 나왓슬것이다。即 國內에 多少의 私有財産을 許햇지 大規模의 國有財産制度에 影響을 끼칠 일이 업슬지며 農村에 都市와 가티 選擧權을 주드래도 農村에 코르호즈가 成立된 以上 如何한 異分子도 共産黨員을 壓迫할 程度로 勢力을 가지지 못할것이며 設使 그런 分子가 選擧 被選擧權을 가젓지 候補推薦의 權을 勞働農民國體가 가진以上 꼼짝할수업는것이다。또 信敎의 自由를 許햇지만 反宗敎運動도 是認하얏스니 마찬가지가 아닌가。또 民族共和國을 늘우며 聯邦으로부터의 脫退를 留保케하며 民族會議의 權限을 늘이며、社會的으로 民族虐待를 嚴罰하야 民族의 同情을 엇기에 成功하얏지만 가튼 共産主義에 共鳴하야 聯邦에 加入한 以上 分離할 必要도 업스려니와 分離한 다른 곳에 갈곳이 잇는가 聯邦에는 軍隊와 모든 强制手段이 잇다。그러나 이것을 民族虐待로 생각할 點은 업다。이와가티 國內的으로 問題가 업는 限에 國際的으로 盟友를 엇자면 民主的 國家를 만들어 民主的色彩를 내세우지 안흐면 아니된다 그러니만큼 이것은 實地的 問題보다도 宣傳的 意義가 크다할수도 잇다。그러나 입대껏 獨裁의 國家를 二十年間 標榜해 온 蘇聯이 民主的으로 轉向하는것을 宣言한것은 一大注目꺼리라 아니할수업다 (完)

時事漫畫 庶政一新은 滿洲洪水로부터

正義蹂躪看過하면 聯盟의存在無意
에國民은最後의一人까지自主權利不放棄
壽府到着한에國皇帝의압필

【쥬네브二十六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二十六日 對伊制裁撤回의 聯盟理事會開會數時間前에 쥬네브에 到着하섯는데 驛頭에는 에디오피아代表部氏를 爲始하야 數千의 群衆이 歡呼하야 皇帝를마저 未曾有의 光景을呈하엿다 皇帝는 群衆에게 歡待하시면서 聯盟新會館가 까히잇는 宿舍칼튼·호텔에 投宿하섯는데 二十六日午後 新聞記者團을 引見하고 祖國防衛를 爲하야最後의 悲壯한 아피엘(呼訴)를 發表하얏다 皇帝는 親히 에國語로 人事하고 如左히 述하시엇다

祖國擁護의 大義가 最後的으로 蹂躪되고잇다고 確信하고 眞摯하게 平和維持를 企圖하는 諸君及 世界輿論의 支持를 要請하야 마지안는다 이어서 여페잇던 에디오피아公使館員은 皇帝代身 佛語로 아피엘을 代讀하야

에디오피아國民은 不當한 攻略을입어 方今 悲慘한 暴力政治下에 呻吟하고잇다 國際信義를 信條로하는 聯盟은 權力의 橫行을 默視하고 正義의 蹂躪을 看過해서는안된다 萬一 聯盟이 彼等放置한다면 聯盟은 永久히 無意味한 存在로 化할것이다 皇帝의 西方政府야말로 唯一한合法的政權이다 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祖國擁護를爲하야 全力을 [illegible] 決意이다 에디오피아國民은 最後의 一人까지 自主[illegible]權利를 放棄하시안흘 것이다 國際條約을 蹂躪하고 에디오피아國民이 承認치안는 改變은 斷然 承認해서는아니된다 一步進하야 에디오피아의 獨立擁護를爲하야 大義를 支援하여야 할것이다

監視船射擊事件
國府에嚴重抗議

【南京二十七日發同盟】松村三等書記官은 本省訓令으로 二十七日午後三時 國民政府外交部에이르러 外交部에對하야 天津及靑島에서의 我國監視船의 不法事件에關하야 監視船이、密輸取締를 口實로 密輸船이아닌日本船에 不法射擊을加하고 船員을 負傷케한 것은 容許못할 逸軌行爲로써 斷然默過할수업다 더욱이 國旗에對하야 侮辱을與한것은 密輸船이 아님에不拘하고 重大侮辱的行動이다 라고 口頭로 嚴重抗議하고 中國側의 誠意잇는 解決을希望하얏다

驅逐艦「菊」 唐沽에入港

【天津二十七日發同盟】我國監視船의不法行爲事件을 契機로北中形勢가 急迫됨으로 居留民保護警戒를爲하야 派遣된 驅逐艦「菊」은 本日午前八時唐沽에入港하엿다

獨武器供給密約 中國安定에有害
日本大使館見解表示

【上海廿七日發同盟】獨中密約에 關하야 日本大使館當局은 二十七日 如左한見解를 表示하엿다

本問題의 眞相은 아직 判明되지안헛스나 獨逸은 압서 西南側에對해서도 武器를 供給하엿다는 風說이 잇는데 今回 亦是南京政府에 如斯히 多量의 武器를 長期크레디트로써 供給하는것은 中國의 內戰을 助長하야 中國의 安定을 害하는것으로 中國의 政治上經濟上密接한利害關係를가진 日本으로서는 多大한 關心으로事態推移를 注視하고잇는터이다

歐米依存으로 外務當局重視

【東京電話同盟】一億元의軍事借款을目的으로한 獨中密約成立에 對하야는 外務省은 二十七日까지에는 何等의 情報에 接하고잇지못하나 일즉부터 獨逸하프로의代表者크라인氏와 西南政權과의間에 借款交涉이 잇섯고 또獨逸의 對中貿易이 數月來激增하야五月中의 上海貿易은 前年同月에 比하야 實로七割五分의 激增을 示하고잇는等 事實로外務當局은 獨中間에 協定成立을 豫想하고잇든바 今回借款成立은 右事實을 裏書하는것으로서 推移가 重大視되여잇다 獨逸은 貿易調整을爲하야 最近各國과의 間에 貿易協定의 締結을 進行하고잇든바 今回協定도 滿獨協定同樣으로 貿易調整의 性質을 띈것이며 中國側이 依然歐米依存의弊風을 바리지안코 特히武器를 要求하고잇는 事實에對하야 外務當局은 자못不快하게 하고잇다

知事會議閉幕

各道知事會議는 終了일 二十七日 午前九時부터 總督府 第一會議室에서 前日의 協議事項을 中心으로 續開하야 約三時間協議하고 閉幕하엿는데 今回의 會議의 效果는 左의 諸點에서 有意義하게 맛첫다고 보고잇다。

一、從來 부질업시 抽象論이 行하여던것이 一掃되고 朝鮮의 實勢에 卽한 具體的意見이 만헛던것

一、國策的見地에 立脚하고 또 朝鮮의 各種事業도 如斯한 見地에서 先議할것이란 意向이 自然醞成된것

一、日本內地模倣을 排擊하고 民衆指導로 스스로 無顧에 설信念이 出席者 腦裡에 박키것

一、對日本內地 對滿洲와의 提攜術에 留意하고 各種事業遂行에도 이點에 考慮할것

警察部長會議
二十九日에會議

會議에 繼續하야 半島警察網의 强化를 期하는 各道警察部長會議는 來二十九日부터 總督府 第一會議室에 開催되는데 會議를압두고 殉職警察·消防職員慰靈祭、武道大會、警察參考舘開館式等이 二十七、八日에 各各擧行됨으로 目下日本內地警察部長會議에 出席中의 中野忠北警察部長을 除하고 各道警察部長은 二十六日以來 繼續的으로 入京하야 會議前 이미 事務多忙한 狀態에잇다 二十九日 會議第一日은 午前九時부터 田中警務局長 統裁 十三道 警察部長 出席下에開會되야 爲先 宇垣總督訓示가 잇슨後 笠井檢事長訓示 田中總務局長 演示가 잇슨後 正午休憩 午後一時부터 再開되야 警務局의 指示注意事項을 付議하야 午後四時까지 協議를行할터로 會議는 七月一日까지 三日間 續開 其間半島警察陣當面의 重大問題로

一、不穩說激思想의 根絶

二、國際스파이跳梁에 對한査察

三、國內革新的機運이影響國際政局의 緊迫衝動에依한 民心不安除去및 一般民心의啓蒙誘掖等을 根幹으로하고 本年度事業의外事警察擴充 國境警備의充實 結核豫防運動을爲하야 警察官優遇問題等에對하야 愼重協議를하기로되엿다

名古屋 着名問屋 五德ナイフ 見本代 三德切手 十二枚要ス 新案特許 合資會社 岡谷金物部 名古屋市中區鐵砲町

高級實用萬年筆 十四金ペン代用付エボナイト軸 五個年保證大好評の 新製品! 宣傳期間中一圓二十錢の品原價提供 三錢切手二十枚同封御申越次第を送す 代理店募集 萬年筆專門 三京商會 名古屋市東區石町 振替名古屋二一二三七

綿布加工品一切 ワイシャツ 作業服 エプロン ズボン ジャンパー 足袋 カタログ進呈 製造卸問屋 名古屋市東區石町一 若松宏好商店 振替名古屋二〇九三八番

軍隊拂下改造軍靴 陸軍拂下 改造編上靴 茶利革 一足 二圓二十錢 黑海軍靴 戰鬪隊 編上靴 二圓五十錢 海軍拂下 水兵短靴 一足 二圓九十錢 BA品 A品 一足 一圓九十錢 本品は軍隊拂下の中古靴を改造加工したる堅牢品にて底は半張革に鋲を打込み丈夫で實用向です 諸官省御拂下品 名古屋市東區清水町局前 松山商會 電話東六二一九 振替名古屋一二五二番 ハガキにて御注文次第代金引換小包にて直送します

商報進呈 ハクト印 メリヤス 名古屋南大津町 田組與商店 電話中一〇七二番 振替名古屋七十番

各種子供乘物はデパートのる遠藤へ御用命を 子供乘物製作卸商 遠藤明商店 名古屋市西區上宿町 電話西三九七一番 振替名古屋一三〇番 店名挿擦二張り 商報呈上

スバラシイ意匠… 目のサメル樣な印刷 美しい趣味のマッチ(レーベル) 御用命下さい 安心の出來る店 三十錢郵券代用可 貼込入カタログ贈呈 名古屋石町 電話東二二七九 廣告マッチ 富士紙工社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淋疾 蔘茸五淋錠 淋疾은 精蟲과 淋菌을따라各各다릅니다 淋疾、血淋、肉淋、砂淋、膏淋等을 五淋이라하며 ... 定價 一圓 三圓七十錢 全國有名藥店에 無할時는 本舖에 直接注文하시압 咸興府大和町三丁目 朝鮮靈藥硏究所

六月二十九日早日夜 東劇座公演第四週 林仙圭 作 洪水前夜 二幕四場 洪水、죽엄、人生!! 出演 ... 金健 作 地下室과人生 全二幕 朴昌煥、韓一松、裵龜成 ... 花山學人 作 喜劇 貸借關係 一幕二場 西大門町 電光3 三二番 東洋劇場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鈴木商店

給水區域廣大한 平安水組 貯水池의"바다"露出

千餘町步의 移秧은 絕望

警官은興奮된農民의給水口를保護

【平壤】 기다리는 비는오지안코 올모양도 보히지안을뿐아니라지 독스러운 더위는 처저오게되며 농촌에는 이앙을못한곳이 미라오 직창천을 향하야 한숨을지을뿐 인데평남도관내의 십일개 수리조 합에서는 이십륙일까지 약칠할오 분의 이앙이 맛치어젓슬뿐 순 남(順南)대동(大同) 장수원(長水院)평안(平安)의 네조합은 아직 까지 일할쯤으로 이앙이 지연 되고잇고 평안수리조합은 저수 지바닥이 드러나게되여 감답한 나머지중 일천정보는 [illegible] 비가 오지안는한 이앙은 [illegible] 능하게되엿고 그것도 [illegible] 지 이앙을못하면 모판[illegible] 성숙하게되여 이앙은 영구[illegible] 망되고말터이어서 지금은 [illegible] 하고 그대책을 강구하노라고 [illegible] 남도 농무과에서는 머리를앓코 잇는터이며 맛이나 [illegible] 할준비를 하는중이다 평안수리조합에서 일천정보나 [illegible]

그상섬에 차저가서 경원들이어 데잣간 비켜신흠을다서 그상섬 주인[illegible] 금회(?)메달[illegible] 가륙십오원짜리 한개를 훔처가 지고 어떠로종적을 감추엇슴으 로이게통을 바든소관 동대문경 찰서에서는 고부내각경찰서에 수 배하고 그의행방을 엄탐중이라 한다

金堤에 殺人强盜

犯人은 한洞里사람!

被害者는頸動脈切斷되어即死

이십륙일오후 여덟시쯤에 전북김제군하룡마리(全北金堤郡下龍馬里)에 사는 리종만(李鍾萬)(三)의집에 그동리에사는 박철근(朴鐵根)(三)이라는 사나히가 차저와서 사금(砂金)살데를 안내할터이니 가티가자고한후 리종만의집으로부터 약삼정가량되는 로상에서 숨겨가지고왓든 식도로 리종만의 오른쪽목과기타수십군데를 란자하야 피해자는 경동맥이끈허저 현장에서즉사하엿는데 범인은 전긔리의소지금이백십삼원을 강탈하여가지고 도주하엿다한다 이급보를듯고 김제서에서는 서장이하가 총출동하야 각방면에 비상경계망을 느리고 범인체포에혈안이되여잇다

[illegible] 박재득(朴[illegible]) [illegible] 오후여덟시 [illegible] 사십분 [illegible]

韓博士祝賀會

卅日府民舘에서

작년말에 경응대학(慶應大學)에서 의학박사 의학위를받고 금 서 의회향하야 지난사월부터 시내 서대문정(西大門町)에서 개업하 고잇는한경순(韓京淳)씨의 박사 학위를 축하하기위하야 유지제 씨의발긔로 오는삼십일 오후칠 시시내부민관(府民舘)이층식당에 서축하회를 개최한다는데 지긔 되는분의 참석을환영 한다고한다

滿人一名溺死

【義州】 지난이십삼일 오후네시 이십분경에 의주군수진면 수구동(義州郡水鎭面水口洞) 칠십삼 번지의 명영식(明永植)(三)은동 동리비초(同里批草) 대안인만 주국안동성관전현 제칠구고로자 촌안평하구(安東省寬甸縣第七區古樓子村安平河口)에 잇는 만주 로동자 십오명을 도선(渡船)에 태우고 조선편으로 건너오다가 압록강(鴨綠江) 복판에서 갑작히뜻하지아니한 폭풍을맛나서그 만전복되여 실로십륙명의생명이 위긔일발의 난관을당할때 마 침 그부근을 통행하든 다가시 (高橋)의구조로 만주사람한 명이 익사되고 그외는 모다구 조되엿다고한다

二百五十名連署로 彈壓緩和를陳情

普天教徒가警務局에

일전 전북경찰부에서 단연탄압 을하여 박멸하게된 보천교는 그 후간부들이 협의한결과 총독부 에 진정하게되야 이십삼일부로 경무국에진정을하여왓다 진정서 에는 이백오십명의 서명날인이 잇는데 그내용은 보천교는 이 심한탄압이나 종교의발전에노 력하여왓스며 도수만교도를 가 지고잇는이만치 너무탄압을하면 교도의생활문제와 신앙문제에도 관계가큼으로 탄압을 완화하여 잘보호지도하여 달라는것이라한 다 그러나 경무국에서는 보천교 는 사교(邪敎)임이틀림업서 엄 중한단속과 탄압방침에는 다름 이업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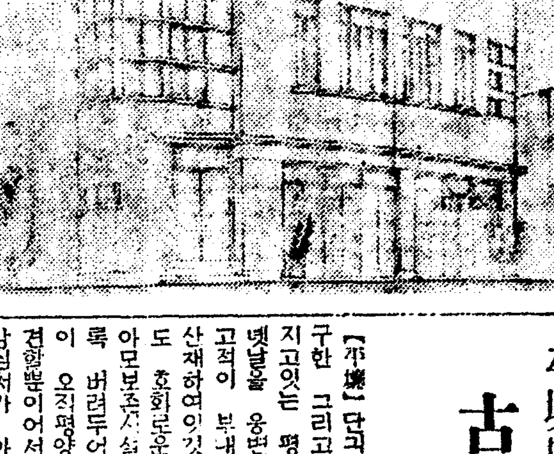
셋房사리十五年만에 京城商工協會會舘新築

塔洞公園뒤에二層洋舘으로

竣工되면一般商工界會合에써-비스

대경성 조선인 상공업자를총망 라한 경성상공협회(京城商工協會)는 그전신인 중앙번영회(中央繁榮會)시대부터 만흔공헌이 잇섯스나 전후십오개년이되는오 늘까지 사무소는 남의세집살님 사리를하야 온것을 항상 유감스 럽게생각하야오다가 작년부터 구 체적계획을세우고 빠고다공원뒤 부유지(府有地)사십이평을 대부 하야 총건축비 약칠천원으로 박 길룡(朴吉龍)씨 설계로 이미공 사에착수하야 목하 신축중인데 칠월금음까지에는 조선상공계의 처음되는 큰회관이 훌륭히 락 성되리라한다 이신회관은 일반회원의 공유 물로서 만히이용될것으로서 아 래층은 점포로 빌녀주잇고 이 층회의실은 상공계기타의 회합 으로서 사용할수잇게되리라한다

(사진은신회관의설계도)



建築費用半分은 一般의義捐으로

會員中自進義捐遝至

신회관은 낙원정(樂園町)삼백번 지에다가 철근연와제 이층양관 으로 연건평 사십팔평을 짓는 중인데 건축비용 칠천원중에 이 천오백원은 그동안 모아두엇던 건축기금이오 일천삼백원은 역 원(役員)들의 내인돈이고 남어 지 삼천여원은 일반회원의 의 연(義捐)으로 보충할터이라는데 상공계의 처음되는일이라 회원 들의 가진의연이 답지한다는데 이십칠일까지의 의연금을 내인 이는 아래와 갓다한다

第一回義捐者氏名(役員及其他)

▲百圓式 朴承稷 李東善 金圭冕 鄭顯普 洪必求 洪純裕 韓翼變 李基衍 崔楠

▲五十圓式 柔在昶 太應善 孫鍾洙 李圭鉶 崔在換 鄭推權 韓許懿秦株式會社

(合計一千二百五十圓)

機關紙도發行

경성상공협회신 회관이 락성된후 에는 조선인 상 공계에 조품이라 도 연구지도에이 바지 하기위하야 다년간의 숙제이던 기관지(機關紙)를 발행코저 목하그구체안을 연구중이라한다

開城署刑事隊 入京活動猛烈

이십칠일오후여덟시쯤 개성(開城)경찰서남(南)형사등 세명이 부내종로경찰서 사법계에 나타 나서 그형사대의 응원을어더 가지고 부내모처에 출동하야모 범인을 체포코저 활동을 개시 하엿는데 사건내용은 비밀에부 침으로 알기어려우나 개성에근 거를두고대규모로 홍삼(紅蔘)을 밀조하든 범인이 경찰의 손이 빼치자 경성에 도망와서 숨은 것이라한다

洪城普天教眞正院 解體키로決定

【大田】 충남도내에산재한보천교 (普天敎)도가 약칠백명가량이으고 홍성(洪城)에진정원(眞正院)을두 엇는데 충남경찰부에서는 저난 이십삼일수곡(水谷)고등과장이출 장하야 간부칠팔명을 회합하야 노코 그해체와 전환할것을 권 고한결과 전부해체할것을 맹서 하얏다한다

平壤府를中心으로 古蹟保存을計畫

三千六百圓의補助로

【平壤】 단군고도 만마년의 유 구한 그리고 찬연한 력사를 가 지고잇는 평양에는 옛날옛날또 옛날을 웅변으로 설명하고잇는 고적이 부내에 또는 보교외에 산재하여잇것만 옛날에 그러케 도 호화로운 문화의 전당들도 아모보존시설이 업시 퇴페하도 록 버려두어 유서깁흔 고적들 이 오직평양지책지속에서나 발 견할뿐이어서 뜻잇는 사람들의 상심처가 아닐수업섯든것이다 평양고적보존회에서는 평양부 와도에서 보조 상의류보원을어 더가지고 금년중에 영구보존시 설을 하기로하고 보조시청과 공 사인가신청을 체출하기로되엿다 이제 보존시설을 하기로되고

적은 긔자정(箕子井) 긔자정전 (箕子井田)예곳 칠성문(七星門) 집홍수선과 성벽의 일부수축, 숭흥사지(崇興寺址)주측, 고적설 명표식(標識)이신설개등이라한다 그리구 고란공원의 일대웅 자가 되여잇는 금수강산의일각 에 웃뚝소사잇는 을밀대(乙密臺)상에 지나간날의 허구한풍 자최를 가득히 간직하고잇는사 허정(四虛亭)도 춘풍추우 수백 성상을 경과하는동안에 또는갑 오년란리통에 타화의세례를 바 덧기때문에 퇴폐가심하고 그집 웅은 금시에 떠러저나려지든만 이므로 이것도 전체에대한 보 강공작을하기로 되여 영선계에 서설계를진행중이다

諸般工事接踵에 投機、射倖心이激發

當局은各道에善導指示를通牒

철도신설공사등 사업이만히 발 흥됨에따하 토지『뿌로커』가 갑 작히발호하고 지방민들이사행심 에끌리여 토지에투기하는일이만 허 사업진전과 지방발전을 방 해하는일이 만흠으로 총독부에 서는 특히 신흥사업에관한 리 해를 일반에게 인식식혀 얼로 당도안흔 투긔사행행위를 하지 안토록 하는동시에 향상지방전 반의득실과 장래의 리해에 안하도록 지시하라고 각도에통 첩을내어다한다

事故激增으로 主要驛에救急箱

철도국에서는 최근려객과 화물 의격증에따라 려객과 종업원의 사고도증가하고 잇슴으로 전조 선주요역과 사철(私鐵)전복역등 사십오개소에 구급(救急)약품시 설을 근간시행하리라고한다

滄川町에腸窒扶斯

여름철에들자 각처에 병마가조 량하고잇다 시내창전정(滄川町) 사번지에사는 최간란(崔干蘭)(三九)이라는 녀자는 지난유월십일 부터원인모를 병을알코잇섯는데 이십칠일오후세시에 장질부사로 진단되여 곳철도병원에 수용하 엿다한다

豪氣부리다溺死

부내 광희정(光熙町)일정목 일 백오십삼번지 겸창(鎌倉)인쇄소 직공 장성근(張成根)(二〇)은 이 십칠일 오전열한시 그인쇄소직 공 이십여명과함께 뚝섬유원지 로 놀러가서 배세척을 비러나 누어타고 주류에 일오려 헤염 치고 놀다가 잘못하야 빠저죽 엇다한다

極貧者에無料施藥

滿春醫院特志

시내소격정(昭格町)일백오십사번 지 만춘의원(滿春醫院)에서는 이 번에 딸사가외로운사람과 극빈 자에한하야 무료로 약을주는데 태진할때에는 반듯이 그의원에 서발행한 무료시약권에 확자가 거주하는정총대(町總代)의 도장 을바더오면 병의경중을따러 약 을 다섯첩내지열첩까지 지어준 다고한다

밥짓다가燒死

【新義州】 부내 운경정(雲景町)구번지 자동차운전수 김명식(金明植)의 처 리오희(李五姬)(三[illegible])가명씨는 이십사일저녁 자긔 집부엌에서 밥을 짓고잇든중 아 궁이에잇든 휘발유(揮發油)에불 이 옴겨붓는통에 그만 전신에 화상을 당하야 인사불성이 되 것을 곳도립의원(道立醫院)에가 저다 수용하고 응급치료를 베 프럿스나 소생하지못하고 두일 밤열시에무참한죽엄을하고말엇다

蔚山赤化事件 豫審終結公判廻付

被告五名全部有罪

【釜山】 작년이월경 경남울산경 찰서에서 검거된 울산적화사건 (蔚山赤化事件)은 검거이래 일 년사개월만인 지난 이십륙일에 예심이 종결되여 전부치안유지 법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 공판 에 회부되엿는데 그예심종결서 에나타난 범죄의사실은 소화칠 년칠월경수경 울산군 성남동 ([illegible]山邑城南洞) 박상선(朴相善)방 에서 피고들이 회합하야서 사 유재산 제도를 부인하고 공산 제도사회의 ××을 목적한 울 산독서회(蔚山讀書會)란 비밀결 사를 조직하고 사회주의 서적 을 구독하는일방 실천운동으로 경남 양산군(梁山郡)통도사(通度寺)와 소작인간에 소작료문제 로 분쟁이이러낫것을 기회로소 작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정을 한것과 또메-데에 불온문서를 산포한일등이 잇섯다한다 그리고 공판에회부된 피고의씨 명은다음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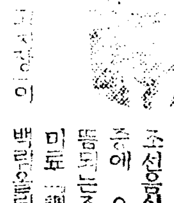
▲農漁業 李美東(二八)
▲新聞記者 李東介(二七)
▲店員 朴相善(二五)
▲農業 李泰述(二〇)
▲農業 金壬出(二三)

伯林올림픽에應援出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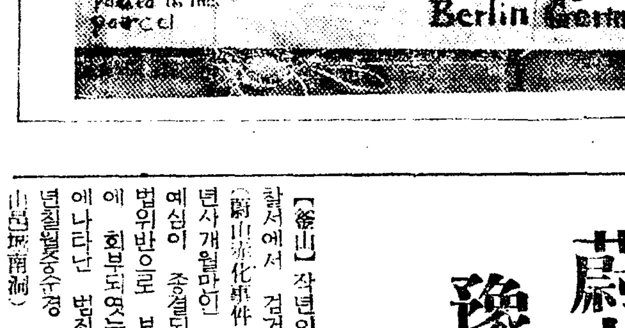
우리七勇士의"보비위"가使命

"[illegible]고치장"이

高君 本社에寄托、發送



조선음식 에울리불관계로 고생을한다 는소식이 [illegible] 면 그처럼한되는일은없을것 [illegible] 미묘[illegible] 오…하는말과함께 조선사람 에게는 선조때부터 비위를 [illegible] 도있는조미로 강열한 전통 (傳統)을가진 고치장과 마늘 [illegible] 장선을 상사에꾸려가지고온 스포-츠미담의주인공이잇다 그는 『우리엄러스포-츠』에 게잇서서의 선배인 고희서 (高羲書)군으로 종래조선의 『스포-스맨』이 세게적무대 에나갈기량을 다툴때에는 언 제나 비위에 맛지안는-례 를들면 기름끼만코 텁텁한 서양음식에컨디순을 남비하 야 막상경긔에들어서면중분 히실력을 발휘하지못하는일 이비일비재하얏슴으로 이번 에는 종래의각종국제경긔보 다백림에가서 싸움일꿈용사 의 성적여하가 압날의 조 선스포-츠게를 위하야 여러 가지로 중대한 의의를 갓 고 잇는만큼 고국에서 선배들의 원을 보내고잇는 선배들의 책임감도 중하다는 걱정을 하든끄테 묘안을 생각해내 인것이 고치장과 마늘장선! 을 보내어 그들의 원긔를 돕지는것인데 이부탁을 바 든 본사에서는 즉시 국제 우편으로 백림 올림픽촌에 이미 투숙하고잇는 손긔정 군과 남승룡군에게 붓첫다



(사진은 고희서군과 고치장상자)

모기장에불이붓터 母子가重輕傷

二十七日纛島의慘變

고양군 뚝도면 자마장리(高陽郡纛島面雌馬場里) 에잇는 삼환 (三環)벽돌공장의 직공 최도원 (崔道源)의 집에서 이십칠일오 전세시쯤에 등잔불이 넘어저서 모기장에 불이당겨서 그안에서 자고잇든 전긔최의 처리씨(李 氏)(三)와 장남영수(永壽)(一)이는 가화상을 입엇는데 전긔리씨는 중상을 입엇스며 방금뚝도병원 에입원치료중이라고한다

모히中毒死亡屍

이십오일 오후여덜시쯤에 시내 서소문정(西小門町)이십일번지 다 폐 년령이 사십세가량 되여보 이는 조선사람남자의『모루히네』 행려사망자가 발견되엿는데 주 소성명등은 알수업스며 이로서 서소문정은 금년에 들어서 열 여섯명째의 『모루히네』행려사망 자를 내이고잇다

親分을奇貨로 金貨메달詐取

부내신당정(新堂町)지영근(池永根)은 부내본정삼정목 이십칠 [illegible]

中等柔道에 優勝한 中東軍(上)과 武道大會入場式(下)

遠來의崇商을擊破코 中東連五年制覇

延專主催 本社後援 中等武道大會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주최 와본사후원의 제칠회 전조선중 등학교무도(武道)대회는 이십칠 일오후한시삼십분부터 연전로천 극장(露天劇場)에 가설한림시도 장에서 장쾌한막이열리엿다 멀리관서의강호 숭인상업(崇仁商業)군을비롯하야 재경다섯학 교의 륙십여명건아들이 씩씩한 자태로입장한후 동대회본부위원 리춘호(李春昊)씨의 개회사가잇 섯고작년도 우승교 중동학교(中東)주장 한성률(韓聖律)군으로부 터우승기를 반환한다음 선수일 동을대표하야 숭인상업주장김기 돈(金起敦)군의 선서문랑독으로 입장식을마치고 휘문고보대 중 동학교전으로부터 경기의막이열 린바 열전또 열전으로다음의전 적과가티 중동군이 결승전에숭 인상업군을 격퇴하고 련오년우 승의패기록을지엇다 이리하야동 대회부회장 유억겸(兪億兼)씨로 부터 우승기를 수여하니때는오 후다섯시오분 원만도 성황리에 종막을고하엿다

【第一回戰】

徽文2…4中東(勝) (審判 韓格熙氏)
○洪性五…金光浩×
×李東禛…林應鶴○
×金亨鐸…李相乭○
×鄭憲甲…韓聖律○
○金泳烈…崔正洙×
△全斗洙비임閔埈植△
×具然相…羅鍾煥○

中央2…4崇商(勝) (審判 李圭鉉氏)
×金義同…鄭寬淵○
○金간羽…梁好民×
○鄭在洙…韓承錫×
△李俊浩비임申載禧△
×鄭東浩…韓昌源○
×李在璣…池寬淳○
×黃潤大…金起敦○

【準決勝戰】

普成0…3中東(勝) (審判 張 權氏)
×金在璜…金光浩○
△車成穆비임林應鶴△
△權正陽비임李相乭△
×李翰明…韓成律○
△李彭烏비임崔正洙△
△崔學春비임閔埈植△
×鄭泰勳…羅鍾煥○

大東1…4崇商(勝) (審判 崔佑東氏)
×李泰榮…鄭寬淵○
○李定杜…梁好民×
△鄭雲克비임裵鎭舜△
△金昇鉉비임申載禧△
×石東均…韓昌源○
×趙昌權…池寬淳○
×徐永完…金起敦○

【決勝戰】

中東(勝)5…1崇商 (審判 李景錫氏)
○金光浩…鄭寬淵×
○林應鶴…梁好民×
○李相乭…裵鎭舜×
○韓聖律…申載禧×
△崔正洙비임韓昌源△
×閔埈植…池寬淳○
○羅鍾煥…金起敦×

全朝鮮씨름 嚴君優勝

普成高普張君惜敗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 第九回全朝鮮씨름大會는 二十七日午後八時半부터 鍾路靑年會館體育館에서 前日에 倍加한人氣속에 第一回戰及第二回戰에 雌雄을 決하고 第三回戰으로부터 開始되엿다 그리하야 中等校의 力士 協贊의姜顯文 普成의張基虎 昭和工科의金東燁諸君과 京電의嚴漢龍君이 諸强豪를 물리치고 準決勝에 드러가 大接戰끄테 張基虎君(普成)과 嚴漢龍(京電)이 이겨서 決勝戰에는 嚴君이 二對一로 勝捷하야 榮譽의優勝을獲得하엿다

◇第三回戰
姜顯文(協贊)2…0韓潤世(商業)
金義善(普成)1…2李鍾洛(學生)
朴義燮(徽文)1…2李瓊泰(普成)
姜德錫(京電)2…0李鍾哲(商業)
張會인(工學)1…2韓鐸行(商業)
張基虎(普成)1…2李基湘(商業)
金三植(學生)2…0朴宗燮(徽新)
李學源(徽文)2…0朴 南(商業)
安鍾潤(普成)1…2金德鐸(徽文)
郭泳燮(學生)2…0柳利錫(京電)
金朴萬(學生)2…0崔鼎顯(徽文)
金東燁(工科)2…0金用懋(商業)
李貞垣(普成)1…2蕭熙俊(靑學)
吳龍甲(京電)2…0金顯相(學生)
張明善(普成)0…2嚴漢龍(京電)
金起夏(商業)2…0柳南壽(商業)

◇第四回戰
姜顯文(協贊)2…0李鍾洛(學生)
李瓊泰(普成)1…2姜德錫(京電)
韓鐸行(商業)0…2張基虎(普成)
金三植(學生)1…2李學源(徽文)
金德鐸(徽文)2…1郭泳燮(學生)
金朴萬(學生)1…2金東燁(工科)
蕭熙俊(靑學)0…2吳龍甲(京電)
嚴漢龍(京電)2…0金起夏(商業)

◇第五回戰
姜顯文(協贊)2…1姜德錫(京電)
張基虎(普成)2…1李學源(徽文)
金東燁(工科)2…0金德鐸(徽文)
嚴漢龍(京電) 棄吳龍甲(京電)

◇準決勝戰
張基虎(普成)2…1姜顯文(協贊)
嚴漢龍(京電)2…0金東燁(工科)

◇決勝戰(五判三勝)
嚴漢龍(京電)3…2張基虎(普成)

入賞者=▲一等嚴漢龍(京電)▲二等張基虎(普成)▲三等姜顯文(協贊)金東燁(工科)

徽文10A 멕시코4

徽文高普對멕시코俱樂部野球戰은 二十七日午後四時三十分부터 徽文球場에서 崔昊洙、宋在景兩君 審判下에 멕시코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十A對四로 徽文高普快勝하엿다

◇投捕=(徽文)鄭順謨、李春大(멕시코)閔鍾圭、李際九

멕시코	000103000	4
徽文	00003520A	10A

醫專4 高商0

京城醫專對京城高商定期野球第二回戰은 廿七日午後四時十分부터 京城球場에서 京醫專先攻으로開始된바 結局四對零으로 京醫專軍再勝하엿다

高商	000000000	0
醫專	000000400	4

延專庭球部 西朝鮮과滿洲에

延禧專門[illegible]에서는 [illegible] 利用하야 西朝鮮과滿洲 [illegible] 一行은 六月二十九日 [illegible] 으로 [illegible]

▲六月廿九日 對[illegible]戰▲三十日 [illegible]▲七月二日 對[illegible]戰▲四日 對安東戰▲六日 對撫順戰▲八日對大連戰▲十一日仁川着

京畿中等野球

延禧專門學校主催의 第六回京畿道中等學校野球大會는 七月二日(午後四時廿分)、四日(午後二時)의 三日間 延專球場에서 行할터이라는데 參加校는 野球統制訓令에 依하야 當局의 承認을 어들必要가 잇슴으로 六月三十日正午까지 主催側에 申請許可가到着하도록하기를바란다고한다

武舘昇段研進者發表

朝鮮研武舘에서는 지난二十日午後七時半부터 同舘에서 昇段進級試合을 擧行한바 이날의成績을 審査한結果 다음과가튼 昇段進級者를發表하엿다

▲四段 裵庚烈▲二段 李定業 朴容植▲二段候補 元謙植 李夏▲初段 朴東煥 兪寬濬▲初段候補 安秉瓚 林秉日 李昌吉▲一級甲 金永奉▲二級甲 尹漢海 梁石童 宋球鎬▲二級乙 白鳳圭▲三級甲 金南均 裵庚燮▲三級乙 金壯根▲四級甲 申允坊 周道衡 李裕宅 金璟根 李喆哉 李銀浩 李福吉 金熙稷 安秉璡 張祺億▲四級乙 姜大鴻▲五級甲 梁元錫 李允洙 黃起祚 姜宅圭 金周洙▲五級乙 池大植 宋奉用 李錫寬 朴世興 朴熙鏐 李鍾勳 金采雲▲六級甲 金容基 延興植 張炳斗 文乙漢 張炳鉒▲六級乙 李昌厚 鄭鎭達 金基鏈 今石 金昇潤▲少年部二級甲 韓蓮壽▲六級乙 李根善

못보시면大損!

日本서처음생기는 絕對로他에比할수업는 中學講義錄의特賣

全學期十二卷(合本定價十二圓)을 단지 三圓에 大投賣

일어나오라! 獨學青少年이여

只今까지 一個年卒業에十圓餘의 會費를要하든 中學講義錄을 單只三圓에 全學期 全卷을 全部送本함. 短期間에自由롭게 中學全科의學力을 어들수 잇는 中學會는 日本서오직本會 하나뿐, 이犧牲的大壯擧에、 全國中學講義界의人氣는本會에集中、申込殺到、後援激勵의書面感謝狀이 續續山積하는 大盛況, 申込은一日이라도速한 것이 有利、只今곳, 特賣期間 中에申込하시라。

入會의好機 只今곳入會하라 十圓以上의會費를拂入하는他講義錄보다 理想的인最新式講義錄으로工夫하시라

全十二卷五千餘頁

破天荒的安價內容完全無比

最新式講義로가장平易한

文部省中學令에準據한全課目網羅

中學全科를網羅한 內容課目은左記와갓다

修身講義 國語講義 作文講義 漢文講義 習字講義 國文法講義 地理講義 外國地理 滿洲國地理 日本歷史 東洋歷史 西洋歷史 現代史講義 動物講義 植物講義 鑛物講義 生理衛生 算術講義 代數講義 幾何講義 三角講義 物理講義 化學講義 英語講義 英文法 英作文講義 公民講義 世界思潮 其他

申込과送金法

◆會費(講義錄十二卷)三圓 海外五十五錢

[illegible] 送金은爲替又는振替 [illegible] (切手代用은五分增)

形便上 一金引換으로 申込時는 [illegible]

[illegible] 會員次第會員名簿에登錄

全部同時에嚴重包裝急送함

入會後의特典各條

[illegible] 學校先生에 [illegible] 하게解答하여드림

昭和模範中學部

東京·麴町·九段·三丁目二番

振替東京八四八三八番

二十七日より七月二日迄新作封切

待望の豪華プロ

パラマウント超大作日本版

キング・ヴイダー監督不朽の傑作

薔薇はなぜ紅い

マーガレット・サラヴアン、ウオーター・コンノリー主演

南北戰爭時代の或る農場の持主一家をバツクに、移り行く世相と變り行く人々の心境をキング・ヴイダーは一流の氣むらないジツクリとした形式のうちに語る戰ひの抒情詩

オール・トーキー 處女花園

P・C・L映畫撮影所新築記念作品

菊池寬原作・矢倉茂雄監督

堤眞佐子・中野英治・山縣直代他

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わが胸は高鳴る

フランク・タツトル監督ビング・クロスビー、キテイ・カーライル

◆晝夜三回入替ナシ大五〇學三〇

次週封切P・C・L兄いもうとコロムビア映畫オペラハツト

若草映畫劇場 (電本二一四〇番)

不潔千萬의 호떡집!

今後는嚴重團束

簡易飲食까지만드러파라 衛生上重大問題

서대문서(西大門署) 관내에는 중국사람의 호떡집이 약오십여집이 잇는데 이들은 어느관내에 잇는것이나 마찬가지로 모다들 불결해서 위생상으로 말이못되는 형편이므로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하라라한다 즉 호떡집이라는것은 세민층을 상대로하는 가장저급의직점으로서 소위점포라는것이 몹시 협착할뿐외라 모든 긔명이며도구 그리고쿠ㄱ자신들의 생활이 비참하니만치 그들의 입는옷과 거처범절이 극히 추해서 여름철이되면 파리、모기、빈대、하로사리떼가를 온갓 긔생충들이 들끌코잇서 가진 전염병균을길르고잇기때문이라한다 떠구나 그들 호떡집주인들은 호떡맨드는것이 본업이어만 게다가 부업으로 『뎀뿌라』(天婦羅)、『백알』(白干)등을 [illegible] 하는것은 물론더군다나 그들이 부르는소위 『객잔』(客棧)즉 보행객주집의 경영을하고잇서 중국사람을 주장으로하고 다음으로는 조선사람 로동자들까지 협합하여스로 [illegible] 고 숙박료를맛는현상이어서 경찰규에 위반되는것은 고사하고 말할수업시 불결한것이므로 제라고한다 그래서 그서에서는 이사실을 엄밀하게조사해가지고 밝혀되는족족 엄중하게 처벌하리라한다

日曜講話

◇中央教會 午前十一時 미등애잇는가? 李鎭亭氏
午後八時 樂園을잃은人生 [illegible]氏
◇中央基督教青年會 下午三時 聖經이하나님의말삼이며우리의 [illegible]

[illegible]

京城女高普 庭球優勝

一高女軍慘敗

京日主催의 第十八回全朝鮮女學生庭球大會團體戰은 廿七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運動場코-트에서열린바 昨報以後의 戰績은 다음과가트며 決勝戰에 京城女高普軍은 第一高女를 第一라운드에서 손쉽게 물리치고 榮譽의優勝權을 獲得하엿다

◇第二回戰

【進明】 ×(金貞順 金榮彩)1…4(李春卿 金鍾淑)○ ×(申龍鉉 徐廷五)2…4(李福順 金炳淑)○ ×(崔順玉 李相烈)0…4(韓貞順 林惠玉)○【女高】勝

【海州】 ×(清水 村山)0…4(佐藤 本山)○ ×(崔貞淑 山邊)1…4(森 須川)○ ×(李義禮 早瀨)0…4(牧野 江川)○【一女】勝

【梨花】 (李惠卿 李圭端)0…4(崔聖貞 洪福貞) (申賢成 宋姬完)3…4(金福根 尹玉貞) (崔姬涉 南基玉)0…4(張璟煥 吳慶雲)【同德】勝

◇準決勝戰

【二女】(第一라운드) ○(古賀 神保)4…0(須川 森)× ×(木村 毛利)1…4(牧野 江川)○ ×(松尾 福田)2…4(佐藤 山本)○ (第二라운드) ×(古賀 神保)1…4(牧野 江川)○【一女】勝

【女高】(第一라운드) ○(金鍾淑 李春卿)4…3(崔聖貞 洪福貞)× ×(金炳淑 李福順)0…4(張璟煥 吳慶雲)○ ○(韓貞順 林惠玉)4…1(金福根 尹玉貞)× (第二라운드) ○(金鍾淑 李春卿)4…1(張璟煥 吳慶雲)×【同德】

◇決勝戰 【女高】勝【一女】

◇…團體庭球戰에優勝한京城女高普팀

一高女가優勝 陸上

[illegible]

【二百米第二豫選】A組 1同德 [illegible] 五秒六 2女高 [illegible] 五秒六 B組 1一高女 [illegible] 五 [illegible]
【四百米繼走決勝】1一高女 2進明 3女實 [illegible]
【二百米繼走決勝】1一高女 2同德 3女 [illegible]
【百米決勝】1佐佐木(一高女)一三秒七 2金泳喜(同德)一四秒一 3金英子(女高)一四秒三 4李孝淑(進明) 5穗坂(龍谷)
【八百米決勝】1池田(一高女)二分一三秒八 2酒見(一高女)二分一四秒五 3青木(一高女) 4本山(二高女) 5崔喜模(進明) 6千聖溶
【二百米決勝】1金泳喜(同德)二九秒九 [illegible]
【四百米繼走決勝】1一高女 [illegible] 2女高 [illegible]
【二百米障害決勝】[illegible]

◇總得點順位

1	一高女	六九·五〇點
2	二高女	四六·五〇點
3	女高普	二五·七五點
4	同德	二三·〇〇點
5	進明	一七·〇〇點
6	女實	一一·五〇點
7	龍谷	八·七五點
8	仁高女	七·〇〇點
9	向實	零點

女子卓球

同德과女高優勢

朝鮮卓球協會主催의 第一回全京城女子中等校卓球리-그戰은 廿七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女子公立實業學校講堂에서 열리엇다함은 昨報한바어니와 參加校가八個校나된 關係로 하로동안에 맛칠수업서 今廿八日午前十時부터 同場所에서 繼續擧行하기로 되엿스며 第一日閉戰까지의 各校戰績은 다음과갓다

【淑明】1…3勝【女高】 任昌淳 1…3 金春姬 / 王点順 3…0 宋仁子 / 崔敏洵 3…0 李福求 / 李已相 0…3 閔蓮植 / 朴長順 不戰 尹慧良
【同德】1…3勝【一女】 柳彰男 2…3 三小島 / 姜順玉 0…3 小出 / 許完順 3…1 遠山 / 李孝根 1…3 遠藤 / 李喜順 不戰 大槻
【淑明】2…3勝【女商】 尹明淳 2…3 尹相鎭 / 李昌相 3…0 李明嫦 / 崔敏順 3…1 卞先愛 / 王点順 0…3 金順基 / 任長根 1…3 李明鎭
【女實】0…3勝【二女】 閔連植 0…3 小白原 / 李福求 0…3 山松岡 / 金春姬 0…3 藤野 / 尹慧良 不戰 出田 / 李仁順 不戰 原口 / 遠小三大 ...
【同德】3…0勝【女商】 玉先 3…0 金順 / 男嫦 3…0 辛庚 / 柳順 3…0 李春 / 李喜 不戰 李仁 / 許完 不戰 梁愛
【淑明】3…0勝【二女】
【同德】3…0勝【貞信】 ...

(卓球 match scores partly [illegible])

進明籠球惜敗

對一高女決勝戰

籠協朝鮮支部主催의 全朝鮮女子選手權大會 中央豫選리-그 決勝戰인 進明女高對 第一高女戰은 二十七日 午後四時부터 京城運動場코-트에서 열린바 進明女高奮戰하엿스나 結局 二十二對九로 第一高女軍優勝하엿다

一高女22(13 9 / 7 2)9進明

◇第一日各校戰績

校名	戰數	勝	敗
同德	5	5	0
女高	4	4	0
淑明	6	5	1
一女	5	2	3
女商	4	1	3
二女	4	1	3
貞信	3	0	3
女實	5	0	5

二高女排球優勝

朝鮮排球協會主催의 全京城女子中等校排球大會는 昨二十七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擧行한바 昨報以後의 戰績은다음과가트며 決勝戰에드러가 女高軍은二高女에게 二對一로惜敗하얏다

【準決勝戰】
女高2(22 21 / 20 11)0龍谷
二高女2(21 21 / 8 8)0同德
【決勝戰】
二高女2(21 21 19 / 12 15 21)1女高

【進明】前後反		【一女】前後反
柳熙 020 / 李瑋貞 000 / 金海龍 001	F	森吉高 041 / 野崎 000 / 042
尹丙姬 233	C	中 054
趙福貞 001 / 禹鍾玉 020	G	中 100 / 野村高 002
275		139

京師籠球快勝

籠協主催中等校籠球리-그…京城師範對第一高普戰은 二十七日午後六時부터 京師코-트에서李文鎬 辛在鎬兩氏審判아래開始된바 結局三十對十七로京師快勝하엿다

京師30(22 8 / 11 6)17一高

今日의運動

▲卓球=女子中等校卓球리-그戰 第二日은 午前十時부터 京城女子實業學校講堂에서
▲庭球=女子庭球個人戰은午前十時부터 京城運動場코-트에서
▲陸上=奉天滿鐵對朝鐵陸上對抗戰은午後一時半부터京城運動場에서
▲籠球=第一高普對龍中戰은午前十時부터 京師코-트에서
▲水泳=第五回少年水泳大會는午後一時半부터京城運動場풀에서

盛夏를마지하는이때에——中元贈答에·接客에·凉味넘치는카루피스가무엇보다第一!

朝光 七月號

朝鮮의雜誌王『朝光』七月號와 朝光姉妹誌인『女性』七月號는 倍前의 盛裝으로 곳 發賣됩니다 여름철에 이冊이 업시는 더위를 避할수 업슬것입니다

京城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

女性 七月號

살머서洗濯하시면 더욱少量으로도 더욱히게됩니다 布地를傷치안코、木綿物에도、絹布、毛織物에도使用하면、結局어떠한石鹼보다도經濟입니다

一函·十錢 德用函·卅錢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廿八日 [illegible] 每日三回 [illegible]
◆廿世紀폭스超特作 메추포리탄 (Metropolitan) 리차-드·보레스라부스 [illegible] 主演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畫 나는우리제롱켜리 (Gingerbread)
◆日活超特作映畫 [illegible]
綠の地平線 (三巻) [illegible]
國成社
當る廿四日特別大公開 毎日晝夜三回興行 上映時間表
ニュース 安兵衛十八番斬り 街の艶歌師
新興キネマ提供 高田プロ 大合同製作 原作 村岡 監督 牛原 脚色 村上德三郎 オール·トーキー
街の艶歌師 [illegible]
安兵衛十八番斬り 原作 實説『中山安兵衛』より 新興キネマ提供 [illegible]
嵐寬壽郎大熱演 闘操 松竹 多多良遺路(新入社)本田三郎·荒木忍·大西重夫(新興)
黃金町 中央館

產業

토마토·써ㅣ진 統制協定遂成立
互讓에依하야解決

토마토、써ㅣ진의 日本內地와 朝鮮統制問題는 日本內地星野鑑總請組合長等의 入京으로 殖產局에서 愼重히 協議를 繼續한 結果 互讓에 依하야 如左히 生產統制實施의 協商이 成立되엇다

一、昭和十二年度의 生產數量으로 朝鮮側三十三萬二千函、日本內地側百三十八萬函으로함

一、但 右生產配當은 十一年度를限하고 (今年七月부터 明年度까지)十二年은 再協議한후決定함

右協定은 日本內地가 三個年繼續統制의 原案에對하야 朝鮮側의 主張인 一年間統制(來年度配當增을 包含)의 主張을 容認하는同時에 最初의 朝鮮側生產配當은 四十萬函이든것을 如上히 三十三萬二千函으로 讓步하야 互讓解決을보것이다

今年產小麥의 共販을實施
忠北四十二個所에서

【淸州】忠淸北道農會에서는農家의 農產物收益을 增進식히기爲하야 今年의 收穫豫想小麥七萬七百五十七石中 一萬五千石을 目標로 七、八兩月中을 期하야道內 四十二個所에서 小麥共販을 實施하기로 되엇다한다

日本內地商況
京城御商聯盟會長 談

宮林京城御商聯盟會長은 大阪을 中心으로 東京北陸各地方의 商況을 視察하고 二十四日 歸京하얏는데 如左히 말한다

今年에 入한以來 貿易의 情勢가 좃치못하다 特히 濠洲問題等으로 國家的 貿易管理時代로 드러간것이다 게다가 明年度豫算編成에依한 增稅問題와 其後의 統制問題等으로 相當히 人氣的으로 警戒緊縮氣分이 濃厚함이 窺知되다 그뿐만아니라 東京의 戒嚴令도 아직解除되지안허 文字그대로 內外모다 非常時代를 모하고잇다 商業界와如함도 個個로는 凸凹的現象이잇스나 總體로 不安定하다 特히 目前的으로 夏枯期를 압두고잇슴으로 큰期待는 가질수업슬것이다 如何間 當面橫在한 以上의 諸問題의 輪廓이 明白하야지기까지 人氣的으로 安定은困難할것이다 要컨대 此等國家的犧牲을 甘受하는 覺悟가 財界에 너라나기까지는 財界心理는 解放되지안흐리라고 볼것이다 一般事業界는 低金利와 軍需인플레의 惠澤을 입어 玆三三年間 相當히 好調가 繼續되고잇는터임으로 多少의 그反動도 覺悟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特히 生產設備와如함도 全般的으로 非常히 擴充되엇슴으로 生產制限과 如함도 覺悟치안흐면 안될것이다 如斯히 襲來하는 大勢的跛行景氣의 出現은 難免하야 一般景氣는 總體로보아 不安定하다고생각되다 그러나 一般的으로보면 以上述한바바가트나 個個를 內面的으로 窺視하면 漸次 時勢에 處함에 賢明하게되고잇다 生產者問屋 小賣店等 各히 臨機應變適宜善處하고잇다 그와一般景氣가 中產階級에 相當히均霑한듯하야 大阪等地에서도 中心地의 一流銀行을 비롯하야 支店出張所銀行의 預金이 堅實한 增加를 示하고잇는듯하다 이러한 現象도 興味잇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朝鮮에 도라와 此等日本內地의 情勢와 比較하야 볼때에 如何히 朝鮮은 堅實한發展을 하고잇는가를 늣기게된다

滿鐵附屬地 消費稅令要項
② 七月一日부터實施

麥粉稅令要項

一、課稅率은 滿洲國三稅統稅法所定의 麥粉統稅의 稅率과同一로하고 麥粉一包裝에 對하야 重量二十四瓩 又는 그端數마다 十錢으로하는것

二、麥粉의 製造는 免許制度로하는것

三、麥粉稅는 麥粉을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는때 그製造者로부터 稅金을 徵收하는것 또 製造場에서 麥粉을 消費한때는 그際 搬出한것으로 看做하고課稅하는것

滿鐵附屬地外로부터 輸入하는 麥粉에對하야서는 그輸入者로부터 稅金을 徵收하는것

四、滿鐵附屬地外로부터 輸入하는 麥粉으로서 滿洲國輸入稅를 納付한것에는 徵稅치안흠 또 官의 承認을 受하고 滿鐵附屬地外에 輸出하는 麥粉에對하야서는 免稅하는것

五、麥粉稅納付前에 잇서서는 麥粉으로 處分하고 又는 製造場外에 搬出함을 不得하는것

六、徵稅保全上 必要가잇다고 認하는때는 麥粉의 製造者에對하야 擔保의 提供을 命함을 得하는것

七、麥粉稅를 納付한때는 麥粉의 包裝에納稅濟證을 貼付할것 麥粉은 納稅濟證을 貼付한後가 아니면 이를運送하거나 又는他에 引渡함을 不得하는것

八、犯則 그他의境遇에 잇서서는 麥粉製造의 免許를 取消함을 得하는것

九、自己 又는 그同居家族의 用에 供하는 麥粉만을 製造하는者에는 本稅令을 適用치안는것

十、昭和十一年七月一日부터施行하는것

十一、麥粉稅令施行의際 麥粉을 製造하는者에도 免許申請手續을하게하는것

세멘트稅令要項

一、課稅率은 滿洲國三稅統稅法所定의 水泥統稅의 稅率과 同一로하고 세멘트百瓩에對하야三十六錢으로하는것

二、세멘트의 製造는 免許制度로하는것

三、세멘트稅는 세멘트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는때 그製造者로부터 稅金을 徵收하는것 또 製造場에서 세멘트를 消費한때는 그際 搬出한것으로 看做하고 課稅하는것

滿鐵附屬地外로부터 輸入하는 세멘트에對하야서는 그輸入者로부터 稅金을 徵收하는것

四、滿鐵附屬地外로부터 輸入하는세멘트로서 滿洲國輸入稅를 納付한것에는 徵稅치안흠 또 滿洲國轉口稅를 納付한것에는 轉口稅額과의 差額을 課稅하는것

五、官의 承認을 受하고 세멘트를 滿鐵附屬地外에 輸出하는때는 免稅하는것

六、세멘트稅納付前에잇서서는 세멘트를 處分하고 又는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함을 不得하는것

七、徵稅保全上 必要가잇다고 認하는때는 세멘트의 統制業者에 對하야 擔保의 提供을 命함을 得하는것

八、세멘트稅를 納付한때는 세멘트의 包裝에 納稅濟證을 貼附할것 세멘트는 納稅濟證을 貼附한後가아니면 運送하거나 又는 他에 引渡함을 不得하는것

九、犯則 그他境遇에잇서서 세멘트製造의 免許를 取消함을 得하는것

十、昭和十一年七月一日부터施行하는것

十一、세멘트稅令施行의際 세멘트를製造하는者에도 免許申請手續을 시키는것

西朝鮮苹果 大減收豫想

朝鮮의 三大苹果產地中의 하나인 黃州郡의 今年 苹果作況은 昨冬의 酷寒으로 凍害가잇슨우에 葉卷虫 其他害虫의 被害等으로 一般的으로 苹果가적고 特히 紅玉은 非常히 成績이不良하야 今年大減收를 難免하리라는데 鎭南浦도 黃州와가리 作況이 不良한모양으로 今年朝鮮의苹果地인 西朝鮮一帶의苹果는 大減收가 憂慮된다고한다

延坪島石首魚 記錄的大豐示現
水揚百五十萬圓突破?

朝鮮三大漁場의 一인 黃海道延坪島漁場의 石首魚 漁獲狀況은 例年에업는 豐漁로 그우에 市勢가 조화고 또 漁期가 延長되어 漁獲高百五十萬圓을 넉넉히 突破하리라고 豫想되고잇다 如斯히 例年에 업는 記錄的漁獲高를 豫想하게된 原因은豐漁와 好市勢에依하나 特히 一種의奇現象이라고보이고잇는 漁期의 延長이 好影響을 及하얏다고보인다 即 例年의 漁期는 五月下旬乃至六月上旬까지로되어잇든것이 今年은 氣候와 潮流의 關係로 아직 引潮에는 盛히 約四、五百隻의 漁船이 幾留하야 活躍하고잇서 南朝鮮方面의 不漁에도 不拘하고 이곳만은 各漁船이 모다 滿船의 豐漁로 明朗한 情景을 이루워 再昨의 暴風慘禍와 昨年의 不漁도 完全히 옛꿈으로 사라지고 當業者들은 모다 雀躍하고잇다

新昌에고등어豐獲

東海岸海產物의 主要產地인 咸南新昌은 近間고등어의 漁獲으로 活況을 呈하고잇다는데 今年六月初旬 十餘日間陸揚高가六十駄인데 價格으로 換算하면六千二百十餘圓이라는 巨額에 達하엿는데 이것을 昨年六月부터 十一月까지의 漁獲高 二百五十三駄에 價格二萬九千三十一圓에 比하면 前年의增獲은 確實히 豫想이되다고한다

왓다！왓다！ 정어리大群
九龍浦一帶俄然活氣

去番의 비는 農作에만 조흔것뿐아니라 바다에도 好影響을가저와 潮流는 겨우 平調로되어 漁期에 入하여서도 回游를 보지못하야 憂慮되고잇든 鰮의大群이 느지나마 俄然東海岸九龍浦를 비롯하야 各漁港沿岸一帶에 몰려와 기다리고 기다리든 各漁船은 때가왓다고 모다 出漁하야 活氣를 띄게되엇다 特히 九龍浦方面은 漁船一隻으로 一日六十樽程度의 水揚을 보이고 一方 油肥工場의 굴뚝은黑煙衝天하야 活動이開始되엇다

江原道鑛業狀況

江原道는 全朝鮮中에도 有數한鑛業地帶로 最近數年內에 더욱 急速의『골드러쉬』를 加하고잇다 그리하야 昭和六年末에는 鑛產額이 겨우百餘萬圓에 不過하든것이 最近調查發表한바에依하면 六百萬圓을 突破하고잇스며 現在登錄된 鑛區가 五百三十五個所大部分은 金銀鑛區인바 道內二十一郡뿐이며 그外에는 到處마다 鑛區가업는곳이업다 此中에도 더욱有望한 產金地帶는洪川、麟蹄、平康、橫城、三陟郡等으로 昭和十年末調查한바에依하면二百五鑛區、年產額三百六十九萬三千百二十圓 即一個月產金量이三十貫百八十九匁、銀銅鉛鑛類가百六十一鑛區、五十萬六千六百四十圓으로 一個月二十一貫七百四十匁를 產出하고잇다 金銀鑛以外에도 伊川、鐵原、金化方面에서 採掘하는 硫化鐵이 月平均八千五百噸에 達하고잇스며 그外에도 軍需工業의 重要原料가되는『모리부덴』『탕그스텐』砒素螢石 水鉛等의 重要鑛石을 產出하며 三陟、寧越等地에는 無盡藏의 無煙炭等 無限한 寶庫를 가진 江原道야말로 未久에 一大鑛山王國을 이룰것이다

英米石油業者 六個月貯油承認
懸案의貯油問題解決

【東京電話同盟】英國、米國石油트러스트는 日本石油業法에基한 六個月貯油에對하야 外務、商工兩省과 三個年來 折衝을 거듭하야오든바 廿七日 마이야ー(스탄다ー드)이리ー(라이싱선)兩駐日代表로부터 業法에 服從할 旨를 正式으로 回答하야 國際問題로되어잇든 貯油問題도 玆에解決되어 業者는 業法의 命하는바에따라 七月一日부터 六個月貯油를 實施하기로되엇다

小川商相 談

【東京電話同盟】石油業法은 中島商相當時立案하야 松本商相時代에實施되엇는데 六個月貯油義務에對하야『라이싱선』『스탠다ー드』兩英米『트러스트』가 主義上이에 反對하야 問題는 暗礁에 乘하얏슨바 政府도 業法에 無理가잇슴으로 認하고 六個月의 貯油義務에對하야 國家補償을 行하기로 決定하고 吉野次官이 中心이되어 英米兩社와 數十回에 亘하야 折衝을 거듭한結果 貯油義務를 이에 承諾하게되엇다 이리하야 一時는 業法의 實施에關하야 國法의 威信을 害할 憂慮가잇섯스나 多幸히 解決을 告하얏슴은 實로 깃분일이다

全南蠶種製造 成績이頗良好

全南道의 今年蠶種製造計劃을보면 道內用으로 明春蠶種七萬五千枚 今秋蠶種 七萬五千枚 計十五萬枚와 日本內地方面 移出用蠶種 散卵二十五萬瓦를 製造하게되엿슴으로 道內蠶種家 三十七名은 目下原種飼育中이라는데 今年은 氣候의 順調로 發育이 良好함을따라 發蛾도 速히되여 벌서부터 蠶業取締所로 檢査하엿슴으로 順次冷藏하고 잇는中인데 畢皆良好한 實態에잇슴으로 秋蠶도 豐作을 豫想하게되다한다

問 生이 兒童服 及 生徒通學服專門商을 經營코저하오니 都賣商을 下敎하시오 (京畿一讀者)

答 兒童服都賣商은 京城本町二丁目 福尾裁縫店、通學服은 京城府觀水町 坂野合名會社가잇습니다

生糸業에新生面開拓！ 世界의研究課題 黃繭白化에成功

生糸界에 大發見이 完成되엇다ー黃繭은 白繭보다 飼育하기가쉽고 또 黃繭絲는 白繭絲보다 質도 훨신조흐나 안된것은 色이 黃色이기때문에 實用의 途가 적은것이 欠點으로 그白色化의 硏究는 生絲의 大問題로 日本을비롯하야 伊太利其他各國의 科學者가 다토아 硏究하얏다 그런中 이번 京城中央試驗所荻尾技手에依하야 硏究가 完成되엇다 不遠 學界에 發表되면 世界의 生絲業者에 큰 衝動을 이르킬것이다 中央試驗所染織部主任村松技師는 말하되『荻尾君은 오래동안 硏究하든바이지음 成功하얏다 成績은 實로 훌륭하야白絲와 조곰도 다름이업시할수잇다 只今은 小規模로 實驗的으로 成果를 어덧슬뿐이나 今後 一般化에 可能한 機械裝置의 硏究에 着手할 생각이다』라고한다

"蝸牛"移入을禁止計畫
農作物被害念慮

最近 日本內地에서는 蝸牛의 養殖이 盛行되고잇는바 이에따라 朝鮮에도 養殖熱이 漸高되고잇다 이미 釜山鐵道會館 慶南道山林課等에서는 그養殖에 손을대고잇는데 이蝸牛는 食用으로는 珍貴한것이나 養殖方法이 잘못되면 農作物에 미치는 影響이 莫大함으로 釜山稅關에서는 養蠶의 蝸牛被害에 鑑하야 斷然 農作物保護令에 依하야今後朝鮮에 移入을 禁止하기로되엿스며 이미移入되것에 對하야는 對策을 硏究中이라한다

西朝鮮三道에 빠나나直移入計畫

西朝鮮三道의 躍進的發展과아울러 熱帶產果實『빠나나』가臺灣으로부터 直移入은 勿論下關釜山等을 經由하야 西朝鮮三道에 移入되며 移入量은年年增加를보이고잇서 平南道昨年度移入量은 實로 一萬個을 突破하게되엿슴으로 平南道를 重要한顧客으로본 臺灣高雄州廳에서는同地『빠나나』組合長을 兼한 內務部長 廣谷致良氏를 派遣하야二十二日 道當局과『빠나나』移出統制에 關한 重要協商을하고 離壤하엿는데 이로서 臺灣『빠나나』의 平南市場進出은 發展을볼것이라고 一般은 期待하고잇다

蚜虫驅除에 有效한藥劑
그簡單한調製法

蚜虫은 每年 春育期를 通하야 果樹、蔬菜、花卉等에 莫大한 被害를주는바 이것은 主로 果樹에잇서서는 新芽部分을 侵害하고 때로는 樹皮나 根部에도 寄生하야 莫大한 被害를주며 菜蔬類에잇서도 新芽나 花部에 寄生하야 發育을 阻害할뿐만아니라 重要한 蔬菜部分을 侵害하야 못쓰게하며 花卉類에잇서는 그本來의 生命인 觀賞部分 即葉과花를 侵害함으로 防除에 努力하지안흐면안되다 이제 그防除法을 簡單히말하면 다음과 갓다

防除方法에잇서서도 春期에卵을 採集하야 除去하는 方法도 잇스나 夏期에잇서서는 藥劑撒布에 依하야 驅除하는수밧게업는데 藥劑로서는『硫酸니코친』이 가장 有效하야 果樹、菜蔬、花卉하야도 藥害를 이르키는일이 殆無하다 이『니코친』은 虫의氣門으로부터 虫體에 드러가서 虫의 神經系統을 侵害하야 痲痺식혀서 中毒作用을 이르키는데 그藥劑의 調合은 다음과 갓다

硫酸니코친(四〇) 一合
石鹼 六〇乃至一四〇匁
水 一石

의 比例로 混合하야 製造하는데 藥液量은 原液(니코친)의約 一千倍가된다

普通으로 八百 乃至 一千倍를 使用하는바 八百倍를 만들려고 할때는 硫酸니코친을 一合二勺五才를 混合하면된다 그런데 이藥液의 製造法은 于先 少量의 水에 石鹼을너코 煮沸溶解하고 水를注入하야 全量一石으로한다음 硫酸니코친을 加하고 잘攪拌한다 그러고 이것을 稀薄할때에 너무高溫은 조치못하다 또 稀薄하얏스면 곳 이것을 使用함이조타 撒布時는마스크를 着用하고 되도록 晴天無風日을 選擇하야 强力『뽐프』로 虫體에 잘맛도록하지안흐면 안된다

그런데『니코친』外에 蚜虫의 驅除劑로서 조흔것은 除虫菊加用石鹼인데 그調合量은 다음과 갓다

除虫菊 一乃至二匁
石鹼 二、四匁
水 一升

少量의水에 石鹼을 粉粹하야서 넣코 煮沸溶解한後에 남어지물을 너흔다음에 除虫菊을 混合하는데 石鹼水가 너무뜨거울때에 너흐면 조치못하므로 意注하여야되며 그러고 撒布하기前은 한번 布에걸름을必要가잇다

其他 蚜虫의 驅除用藥劑로서는『네오톤』『데리스』『石鹼』等이 有効하다 前記藥劑는 五日만에 한번식 撒布하면 蚜虫의繁殖을充分히 防止할수잇다 그러고 每日果樹園이나 菜蔬園 花草園等을 도라보아서 二發生의 有無를調査하야 조금이라도 보이면 곳藥劑를 撒布하면조타 그러고 桃梨等은 徒長枝가나오면 되도록 剪定하야通風이잘되도록하며 肥料도 窒素成分가튼것을 多量施用치안토록 注意함이조타

開城人蔘公定價格 (六月二十五日調定)

片級	一〇	一五	二〇	三〇	四〇	五〇	六〇	八〇	一〇〇	小片	無片	大尾	大中尾	中尾	皮尾	細尾
特等	二四、〇〇	一七、〇〇	一三、〇〇	一一、〇〇	一〇、六〇	一〇、四〇	一〇、二〇	一〇、〇〇	—	—	—	—	—	—	—	—
一等	一三、五〇	九、七〇	九、五〇	九、四〇	九、二〇	八、六〇	八、五〇	七、二〇	六、九〇	五、四〇	四、五〇	六、六〇	四、八〇	四、五〇	—	—
二等	一〇、〇〇	八、五〇	八、四〇	八、三〇	八、二〇	八、一〇	八、〇〇	七、〇〇	六、六〇	五、二〇	四、四〇	六、一〇	四、七〇	四、四〇	—	—
三等	—	八、〇〇	七、九〇	七、八〇	七、七〇	七、六〇	七、五〇	六、五〇	六、一〇	五、〇〇	四、三〇	—	—	—	—	—
等外	—	—	—	七、四〇	七、三〇	七、二〇	七、〇〇	六、〇〇	五、六〇	四、六〇	四、二〇	—	—	—	—	—

▲摘要=昭和九年產은 本價格表보다 各等各片을 通하야 每斤五十錢低廉

春繭共販消息一束

▲高原 咸南高原郡農會에서는 지난二十日부터 春繭共同販賣를 開始하얏는데 今年은 例年보다 天候의 關係로 養蠶成績이 良好할뿐만아니라 더욱히 價格도前年보다 조와서 參加한 農村에서는 多少의 好況을이루엇스나 그눈치를아라채인仲買업자들의 跋扈로 生產者들은尋常치 안헛수고만하얏다는데 春繭等級과 價格은 如左하다(二十五日現在)

▲特等三圓四十六錢 ▲一等三圓十七錢 ▲二等二圓八十七錢 ▲三等二圓五十八錢 ▲四等二圓二十八錢 ▲五等一圓九十九錢 ▲中繭一圓四十錢 ▲玉繭一圓十錢

▲文川 咸南文川郡農會에서는 지난二十五日부터 繭共同販賣를 開始하얏는데 今年共販成績은 매우良好하다하며 等級別價格은 如左하다한다

▲特等三圓四十五錢 ▲一等三圓十六錢 ▲二等二圓八十六錢 ▲三等二圓五十七錢 ▲四等二圓二十七錢 ▲等外一圓九十八錢

春繭取引市勢 (農林局發表)

月日	場所	種別	最高	最低	買劌	掛目	數量
六·一九	江原三陟	白	三、三六	二、六六	三、一三	二七、〇	九五八、一〇〇
六·二〇	忠南燕岐	〃	三、五四	一、六五	三、二〇	二七、五	九六六、〇〇〇
〃	江原三陟	〃	三、三六	二、六六	三、一七	二七、〇	一、〇五四、三九〇
六·二一	忠南燕岐	〃	三、五四	一、六五	三、二三	二七、五	五五〇、〇〇〇
〃	忠北忠州	〃	三、四四	二、四〇	二、九八	二七、七	七七六、二三〇
六·二二	〃	〃	三、四四	二、四〇	三、〇三	二六、七	八四四、一三〇
〃	忠南燕岐	〃	三、五四	一、六五	三、〇七	二六、五	八〇五、〇〇〇
〃	慶南居昌	〃	三、四八	一、八八	三、〇〇	二六、八	三八一、〇〇〇
六·二三	忠南燕岐	〃	三、三六	一、七一	三、一七	二六、五	一、〇〇六、一八〇
〃	忠北忠州	〃	三、五六	二、四九	三、一七	二七、七	一、〇九一、八六〇
〃	慶南居昌	〃	三、四八	一、九〇	三、二一	二七、八	一、五四〇、〇〇〇
〃	全北南原	〃	三、九九	二、九九	三、四〇	二七、九	一七五、〇〇〇
〃	江原襄陽	〃	三、三五	二、六六	三、〇九	二六、九	七八九、〇〇〇
〃	慶北安東						
〃	慶北安東	〃	三、二四	一、九八	三、二〇	二六、五	三六三、〇〇〇
〃	平南江東	〃	三、四六	二、三三	三、二九	二七、八	八三五、二九〇
〃	全北井邑	〃	三、四九	二、八一	三、二三	二六、一	二二〇、一一〇
〃	平南成川	〃	三、四一	二、四六	二、九六	二七、四	五五三、二〇〇
〃	江原原州	〃	三、三九	二、六八	三、三六	二七、二	八〇七、七〇〇
〃	忠北沃川	〃	三、五五	一、九二	三、〇四	二七、四	一八三、〇〇〇
六·二四	全北完州	〃	三、〇六	二、六八	三、一四	三〇、五	一四七、〇〇〇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一二八	金銀鑛	全南靈光郡法聖面	六月五日	京城府和泉町 代表者朴性明 同竹添町黑沼基淑 高敞郡高敞面金相鎬 京城府壽松町李基權 高敞郡高敞面金大衛
一三一二九	同	全北高敞郡高敞面、新林面	同	同
一三一三〇	同	全南靈光郡法聖面、全北高敞郡孔音面	同	同
一三一三一	同	平北泰川郡江東面	同	京城府往十里町 權承天
一三一三二	同	京畿驪州郡大神面	同	龍仁郡內四面 高橋新吉
一三一三三	同	江原旌善郡臨溪面	同六日	東京市王子區稻付町 岩瀨亮
一三一三四	同	同臨溪面、東面	同	同
一三一三五	同	同東面	同	同
一三一三六	텅스텐鑛	同春川郡東面、北山面	同	春川郡春川邑 李林洙
一三一三七	硅砂	黃海長淵郡大救面	同	京城府南大門通 栗崎又男
一三一三八	黑鉛	平北渭原郡大德面	同	江界郡公北面 金貞鎭
一三一三九	金銀鑛	慶南咸安郡漆原面	同八日	福井市壽町 朴萬成
一三一四〇	同	全北完州郡九耳面	同	錦山郡錦山邑 代表者崔衛澈 全州府大和町 崔貞順
一三一四一	同	江原旌善郡東面、西面	同	東京市王子區稻付町 岩瀨亮
一三一四二	同	同東面	同	同
一三一四三	同	同	同	同
一三一四四	同	忠南扶餘郡內山面	同	扶餘郡外山面 金相塔
一三一四五	同	平北龜城郡館西面、宣川郡東面	同	宣川郡宣川邑 [illegible]相基
一三一一〇	金銀鑛	平北昌城郡新倉面	六月一日	昌城郡昌城面 姜顯鉉
一三一一一	同	江原襄陽郡上東面	同	永同郡黃澗面 呂煥敏
一三一一二	同	平南寧遠郡新城面	同	京城府南大門通 代表者宋東秀 定平郡府內面 金仁吉
一三一一三	金銀銅鑛	慶北星州郡金水面	同	高靈郡高靈面 李炳甲
一三一一四	金銀硫化鐵鑛	咸南端川郡水下面、豐山郡天南面	同二日	咸興府城川町 代表者文泰洙 同新興町宮嶋ミサヨ
一三一一五	同	黃海新溪郡赤余面、麻西面	同	平山郡平山面 李南奎
一三一一六	金銀鉛鑛	江原金化郡遠北面	同	鐵原郡鐵原邑 代表者李鍾純 金化郡遠北面李敬天 鐵原郡鐵原邑林丙順
一三一一七	金銀鑛	平北龜城郡龜城面	同	京城府竹添町 崔昌學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八八五九	忠南靑陽郡定山面	六月一日	京城府寬勳町 劉軾烈
一〇八七一	平北龜城郡方峴面、定州郡葛峴面	同	龜城郡方峴面 崔永善
一一八五五	同江界郡城干面、干北面	同	平壤府巡營里 邊錫麟
九二一三	同熙川郡西面	二日	京城府嘉會町 朴春琴
七〇三九	忠南牙山郡溫陽面	三日	完州郡參禮面 東亞興業株式會社
一二一三一	全南和順郡道谷面	同	和順郡道谷面 諸暎珠
一二四六六	同光山郡飛鴉面、河南面	同	東京市麻布區本村町 代表者平木勇治 潭陽郡潭陽面 朴判金
九〇一八	慶南陜川郡伽倻面、居昌郡加北面	同	大邱府南龍岡町 岡本小三郎
四五一〇	平南成川郡大邱面、陽德郡雙龍面	同	新義州府榮町 合成鑛山株式會社
八四九四	同	同	同
八六〇九	同	同	同
一〇一七六	慶北金泉郡大德面、慶南居昌郡北上面、全北茂朱郡茂豐面	五日	京城府漢江通 弘中良一
三三六七	慶南河東郡北川面	同	東京市品川區北品川 株式會社石川製陶所
三三九二	同玉宗面	同	同
三九六七	同北川面	同	同
三四〇八	同	同	同
一二六三〇	全北沃溝郡米面	六日	全州郡高砂町 代表者島倒末吉 同相生町中島金策 同本町朴春文 同淸水町藤原種積 群山府濱町尹武成 同東榮町金尙道 趙佑用
六九四	慶北善山郡玉城面	同	尙州郡尙州邑 菅原貞[illegible]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三〇二〇	忠北永同郡龍化面、全北茂朱郡雪川面、茂朱面	六月一日	金周燮任意脫退함
一三〇五八	咸南永興郡鎭坪面、古寧面	同二日	李賛式任意脫退함
一二八七四	忠北淸州郡梧倉面	同四日	鄭倫根任意脫退함
一一七三〇	平北朔州郡外南面	同	李吉良任意脫退함
三九六七	慶南河東郡北川面	同五日	山口鐵死亡脫退함

◇鑛業代理人届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鑛業權者	事項
八一八四、八一八五、八一八六、八一八七、八一八八、八一八九	平北昌城郡東倉面	大榆洞鑛山株式會社	昌城郡東倉面지、씨、크라ー나ー를鑛業代理人으로選出함 昭和十一年六月一日屆出
八一九〇、八一九一、八一九二、八一九三	同	同	同
八一九四、八一九五、八一九六、八一九七	同	同	同
八一九八、八一九九、八二〇〇、八二〇一	同	同	同
八二〇二、八二〇三、八二〇四	同	同	同
八二二七、八二二八、八二二九、八二三〇	同大倉面、東倉面	同	同
八二三一、八二三四、八二三五	同	同	同
八二三二、八二三三、八二三[illegible]、八二三[illegible]、八二三九、八二四〇	同大倉面	同	同
八二四二、八二四三、八二四四、八二四五	同	同	同
八二五四	同靑山面	同	同

◇共同鑛業代表者指定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七九八八	全北金堤郡進鳳面	六月六日	代表者를玉井丑松으로指定함

黃昏 (121)

韓雪野 作 安夕影 畫

부운(浮雲)(二)

『아이 싫어요……』

정님은 팔로 입을막으며 술을피하야 술멋 술멋 뒤로 물러안는다。

『아니 괜찬타니까、글세 이리와 얘히……』

하고 주임이 정님의 팔을잡아다닐때에 밧게서 조심스러운 신발소리가 나며 이어

『가저왓습니다』

하는 나까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옹、고맙네』

하고 주임은 정님을 노코 얼른 이러나 문을 조곰 밀고 포도주를 밧다가

『뭐? 우스키? 녀어두게』

하고는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나까이의 발소리가 저편으로 사라지는것을 잠시 기다려가지고 다시 자리에 돌아와다

『자아、이건 보약 한가지니까……』

하고 주임이 포도주를 따라 권하는것을 정님은

『아니애요』

하고 재삼 사양하엿다。

『괜찬타니까』

『아니 못먹어요』

『아따 독약도 먹는데……』

하고 주임은 정님의 팔뚤 꽉 잡아 끈다。

『아이……』

『글세 점 먹어보구 말을해』

『아이 노서요』

『괜찬어 글세……』

『아야 아퍼요』

『그리기 자아』

하며 주임은 거센 팔에 더욱 힘을 주어 정님을 꽉 껴안는다。

『아야야……네 그럼……그럼……』

『그럼이 아니라 자아 이러케……』

하고 주임은 억지로 정님의 입에 포도주 한잔을 부어너엇다。

정님은 술에 개키며

『아이 노서요 놔요』

하고 굿센 팔안에서 바동바동 허둥갯다。

주임은 더욱 팔에 힘을 주며。

『아따 잘하는군그래』

하고 또 한잔을 억지로 부어너으려한다。

『아이 그럼……먹을테애……글세 먹어요』

『자아……』

『글세 좀 놔요 먹는대니까』

『석잔만 먹으면 놔주지……자아』

『왝……아이……』

『울지 인제 석잔……자아』

『난 몰라요』

억지로 석잔을 마시고나서 정님은 가슴을 오그리고야 말듯한 주임의 굿센 팔을 힘껏 뿌리치며 마둑지안케 깔보앗다。

『하하하……될그레……인제 조곰 쉬어』

하고 주임은팔을 놓어주고는 괘로워 하는 정님을 변태적인 쾌감으로 바라보고 잇다。

정님은 커다란 포도주사 반잔으로 석잔이나 걱어노앗서 대번에 머리가 확근거리고 정신이 휘ー돌아가진다。

그러면서도 금시 펄쳐지구야 말듯한 장면이 언뜻 언뜻 머리에 떠와서 냉수를 끼언듯이 선뜻해짐을 느끼며 몌번 돌아가기를 재촉하엿다。

『그만 갑시다』

『가긴 어느새 가?』

『밤도 느젓는데……아이 발서 몌시애요 글세……』

『몌시는 알어 뭐해……』

주임은 이러케 말하면서도 저도 은근히 맘이 조려낫다。

(시간은 작구 가는데……)

그는 속으로 이러케 생각하엿다。

아까의 한시간과 지금의 일분이 맛먹지 못한는것 가텟다。 지금의 일분이 더 아까웟다。

그는 술 몃잔을 거푸 듸려켜고

『자아……한잔……』

하고 또 정님에게 술을 권한다。

『아니애요』

『아닌 뭐가 아니어……』

『참말 인제 못먹어요』

하고 정님은 정색하며 말하다가 그러케 술만가지고 사양하기보다는 딴말을 꺼내는것이 나흘것가태서、

『대체 이집은 뭘하는 집이애요?』

하고 의미잇는듯이 야튼 우숨을 지으며 물엇다。

『요리ㅅ집이지 뭔 뭐야……』

『요리ㅅ집인데 이러케 조용해요?』

『아모렴 조용하지 조용허구말구……쥐도 새도 몰라。 그리기 자아 한잔……』

『가만 잇서요』

『아따 그리지 말구 이리와』

하고 주임은 다시 정님을 밧삭 다기여안는다。

▲訂正=本小說第百二十一回의 一部가他와 바뀌어드러갓삽기訂正하야 다시揭載하오니 照亮하시옵소서